

# “불황에 의지할 건 복권 뿐” 사행산업·불황형 창업 유행

### 지난해 복권 판매 6조4292억원 판매...5년 사이 65% 쯤증 사행성 성인게임장 ‘홀덤팸’·창업비용 적은 동네 가게 늘어

“불경기에 의지할 수 있는 건 복권 뿐이네요..” 지난 21일 오후 6시계 찾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복권판매점. 비교적 복권 판매량이 적은 평일(화요일)이지만 복권방을 찾는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곳은 광주에서 1등 당첨횟수가 가장 많은 이른바 ‘명당’ 판매점으로 지난해 9월(1034회) 25억8197만원을 수령해 간 1등 당첨자가 나온 곳이다.

특히 지난 18일 광주에서만 2곳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자 시민들의 기대 심리는 더욱 커진 상태였다.

이 판매점을 찾은 시민들은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0만원까지 각자 주머니 사정에 맞춰 복권을 구매했다.

업주 A씨는 “지난 1월 광주에서 4개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지난주에도 1등이 나오면서 평일이지만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사정은 녀석지 않지만 다들 술, 담배를 줄여 복권을 사는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또를 비롯해 즉석복권인 스피도 등 각종 복권

을 매주 5만원 이상 구매하고 있다는 우모(여·39)씨는 “희망이라고는 복권 당첨밖에 없다”며 “물가는 오르고, 대출금리도 치솟아 매달 나가는 지출이 늘어 돈을 모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 국면이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채감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치달고 있다. 생활물가는 계속해 오르고, 고금리 사태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마저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시민을 겨냥한 사행산업과 복권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원으로 전년(5조9753억원)보다 7.6% 증가하며 사상 처음 6조원을 돌파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은 703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하기도 했다.

극심한 불경기에 의지할 곳은 복권 밖에 없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불경기 속 ‘한탕주의’는 복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다. 시민을 겨냥한 사행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특히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사행성 성인게임장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홀덤팸’도 유행하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홀덤팸’은 88곳(동구 2곳·서구 35곳·남구 1곳·북구 21곳·광산구 29곳)으로 파악됐다. 홀덤팸은 술과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으로 유흥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장 복구만 보더라도 2019년 3곳에 불과했던 홀덤팸이 올해 21곳으로 급증했다.

유행 지났다는 평가를 받는 ‘성인 PC방’(PC 30대 미만 업소)도 복구 기준, 2019년 89곳에서 2023년 161곳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산구에서도 145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불황의 그림자는 동네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서민형 창업’이라고 불리는 동네가게 창업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날 국제청의 국제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통계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과일가게 사업자 수는 2019년 289개에서 2022년 355개로 3년 만에 22.83% 증가했다. 정육점의 사업자 수 역시 같은 기간 541개에서 631개로 16.63% 늘었다.

박진석 (주)한국창업컨설팅 대표는 “고금리와 고



지난 21일 오후에 한 시민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복권방으로 들어서고 있다.

물가를 비롯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은 커지고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위낙 경기침체가 심하다 보니 IMF때 성인게임장과 인형뽑기방 창업이 유행했듯 사행성 산업과 불황형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3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 통합관제센터·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 등 3건 415억 투입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3차년도(2023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

혔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저탄소화, 에너지 자립화에 경쟁력있고 환경친

화적인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광주첨단산단 등 전국 15개 주요 산업단지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3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세부 추진사업별 수행기관과 연차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추진되는 세부사업은 산단 안전·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133억원), 분산에너지 분야 기업지원을 위한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구축사업’(217억원), 입주기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65억원) 등 3건이다.

이외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사업’(3년, 국비 180억원), ‘에너지 자급자족인프라 구축사업’(3년, 국비 200억원)에 대한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예정이다.

황상현 본부장은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를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농협, 쌀 적정생산 대책 권역별 설명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21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쌀 적정생산대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전남도와 벼 수매농협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에게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 직불제’와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또 전남농협은 두류 농작업 대행 우수사례 전파 및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농협 임직원들과 전남도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6853ha) 달성을 결의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오는 24일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2층 회의실에서 동부권 벼 수매농협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복 부분부장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타작물 생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농협은 농정활동을 통해 지자체와 대농가 정부사업 참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신보-소상공인연합회 ‘동반 성장’ 업무 협약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일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과 이기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하였으며 두 기관은 동반성장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신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

졌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내수부진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수요자 중심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국민·기업인 10명 중 6명 “미국 금리 올릴 것”

### 대한상의 설문...47.6%는 ‘한국 금리 동결’ 예상

국민과 기업인 10명 중 6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6~20일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을 통해 2100명에게 ‘미국 기준금리 향방에 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응답자의 58.9%가 ‘배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있지만, 미국 실리온 벨리언스(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 행보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

측이 많았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이어 기준금리 동결(30.5%), 0.5%포인트 인상(10.6%)이 뒤를 이었다.

연준은 21~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정한다. 이후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6%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어 0.25%포인트 인상(32.0%), 금리 인하(13.6%), 0.5%포인트 인상(6.8%) 등 순이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한국의 기준금

리는 동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것으로 대한상의는 풀이했다.

실제 기업인과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소통플랫폼에 쏟아냈다. 한 중소기업인은 “기대감을 갖고 단행했던 설비투자가 고금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SVB 파산으로 국내 자금줄도 막힐까 봐 잠이 안 온다”고 답문을 달았다.

대한상의는 “한미 금리차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금리 절감에 대한 공감감이 더 큰 상황”이라며 “가계와 기업 모두 한계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와 부채 부담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조합원 자녀 입학축하금

### 서광주농협, 34명에 4450만원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은 22일 ‘2023년도 조합원 자녀 입학축하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전달식에는 문병우 조합장을 비롯한 서광주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20명이 참석했으며 고등학교 입학 조합원 자녀 21명, 대학교 입학 조합원 및 자녀 34명에게 총 445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전달했다.

서광주농협 ‘조합원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2년 동안 총 1485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7억720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했다.



문병우 조합장은 “학자금 지원 등의 후원사업을 매년 지속할 수 있도록 농협을 애용해주신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선정된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앞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가 기업 모집

전남도는 다음달 18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하는 ‘전라남도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박람회 참여 희망 기업은 1차로 오는 24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모집은 오는 31일 마감 예정이다.

‘정원에서 찾는 내 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순천시, 곡성군, 보성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여수고용노동지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함께한다.

전남도와 사군,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주력산업 맞춤형 기업이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참여 기업에는 부스를 무료로 제공해 기업 홍보와 함께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위해 현장 채용 면접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정책 홍보관과 인공지능(AI) 면접, 이력서 작성 및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6.96(+28.61)
↑ 코스닥	813.43(+10.90)
↓ 금리(국고채 3년)	3.284(-0.010)
↓ 환율(USD)	1307.70(-3.50)